

국제화시대 해외기술 도입 다변화 돼야

정기성 현대엔지니어링

국제화 시대에 기업의 성패는 세계시장을 향한 기업의 국제화 전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화란 기술 개발단계에서부터 상품화, 마케팅 부문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투자의 확대는 물론 해외 마케팅 능력의 향상과 지적 재산권 관리 업무 강화 등이 현실적인 국제화의 과제이다.

특히 '95년부터 WTO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세계 산업환경은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EU, NAFTA 출범 등 지역주의가 확산 됨에 따라 역외국이 역내 시장으로 접근할 기회가 갈수록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제화된 선진국의

기업들에 비해 자본력, 기술력 경영능력이 뒤지는 우리 기업은 국제 경쟁력이 그만큼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외국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 및 기술도입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많은 로열티가 지불되고, 그에 따라 선진국과 기술종속 관계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보산업 관련 기술도입 건수는 '93년 82건보다 23% 증가한 101건으로 업체 별로는 삼성전자의 30건을 비롯해 빅 4 전자업체(대우, 삼성, LG, 현대)가 70%를 차지, 기술도입이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술 도입 국도 대부분 미국과 일본에 치중되어 있어 기술도입의 다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기술 도입에 대해 국내 경기 호조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그만큼 많은 로열티를 지불, 선진국에 기술종속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기업들의 기술도입 편중현상이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기업이 기술도입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지만 지난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4대 전자업체의 기술 도입은 전체의 56% 수준 정도 였다.

따라서 요사이의 기술도입 추세는 대기업이 오히려 나서서 자체 개발보다는 해외 기술을 도입해 손쉽게 기술을 얻으려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는 곧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국내 첨단산업의 중심이 전문 업체 보다는

대기업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소 전문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첨단 기술을 외국에서만 얻으려 하는 일부 기업의 무분별한 태도이다.

실제로 국내기업이나 전문 연구소에서 자체개발에 성공한 관련 기술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침해를 우려한 기업들은 외국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통한 자체 기술확보의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단기적인 이윤추구에만 급급하여 가시적인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기술개발에는 인색하다.

대학이나 연구 기관이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상품화 및 단기적인 이윤추구에만 지나치게 집착할 때, 기술자립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러나 요사이 새롭게 늘어나는 전략적 제휴는 자유경쟁 시대의 기업으로서는

한번 고려해 볼만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각 기업이 원가절감이나 마케팅 강화를 위해 경쟁자끼리 제휴하는 것이 새롭게 나타나는 조류이며, 얼마전 유럽에서의 삼성전자와 NEC의 256메가 D램 공동개발 합의 처럼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제휴하는 예도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런 전략적 제휴가 시간이 흐를 수록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방법이 연구비용을 줄이고도 기업을 첨단화 하는 적절한 해결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략적 제휴가 성공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도 크다고 본다.

오늘의 제휴자가 내일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성공적인 제휴를 통해 기업의 성공을 이루느냐가 우리가 풀어야 할 국제화 시대의 과제인 것이다.